6월 23일 지극히 거 룩하신 그리스도의 성 체 성혈 대축일

성체, 성체! 무엇보다도, 거룩 하신 성체를 모시는 것. 성체 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요?

2019-6-21

루카의 복음. 9,11 ∟ -17

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

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 다.

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.

"군중을 돌려보내시어, 주변 마을이 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. 우리가 있는 이곳 은 황량한 곳입니다."

예수님께서 "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." 하시니, 제자들은 "저 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 식을 사 오지 않는 한,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 니다." 하고 말하였다.

사실 장정만도 오천 명가량이나 되었다.

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.

"대충 쉰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."

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.

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 에게 주시며,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 록 하셨다.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 었다.

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 주리나 되었다.

묵상

남은 음식들? 예수님의 오산? 믿기 힘듭니다.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치고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 오 늘 날에도 성찬례의 빵에 대해서 똑 같이 말할 것입니다.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고프고 그분께 굶 주리고 있습니다! 주님이신 신성한 빵을 향한 나의 배고픔은 어떠한가 요?

예수 오르테가의 데레사 마리아 가경 자는 스페인 내전을 겪으면서 경험한 종교 박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. 그 녀는 내전의 격전지였던 테루엘에서 적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. 그 녀가 설명하듯 그들에게는 "하느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"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했습니다. "우리는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거룩하신 성체 를 모셔야 했습니다. 성체를 모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울음이었고, 우리 삶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. 성체, 성 체! 무엇보다도, 거룩하신 성체를 모 시는 것. 성체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? 저는 석탄으로 만들어진 그 릇 두 개를 찾아 불에 데웠고, 밀가루 와 적은 양의 물을 찾았습니다. 그것 들로 저는 밀가루 반죽을 만들었고 그 두 개의 그릇 사이에 넣었습니다.

먼지가 있고 변형된 빵들이 나왔습니 다.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래도 그 빵 이 되셨습니다. 한 프란치스칸 사제 는 그것들을 매일 축성시켰습니다... 우리에게는 빵, 물, 휴식 등 모든 것 이 부족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하 느님을 놓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목말라하 는 것보다 우리를 더 목말라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...포위가 끝나고 저를 감옥에 넣었습니다...오, 영성체 가 없는 한 달이 지났습니다! 감옥에 서 나온 후, 누간가 저에게 축성된 제 병들로 가득 찬 매우 작은 상자를 주 었습니다. 저는 그분을 어디에서나 모셨습니다. 얼마나 많은 숨겨져 있 는 성체들이 있나요! 얼마나 많은 비 밀의 '배달'이 매일 이루어지나요! 카 타콤베(순교자들의 지하묘지)에서의 성체! 저는 그 신비와 함께 발렌시아 를 걷고 있었습니다... 혁명의 시민군 들 사이에 성체(Corpus Christi)행렬 을 한 것입니다! 그분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그 길거리들을 지

나쳐가셨습니다. 보이지 않는 신비! 주님, 당신은 얼마나 선하신가요!"

성체성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, 제가 당신의 아들을 '당신께서 그분을 모셨을 때의 그 정결과 겸손과 신심 으로 그리고 성인들의 정신과 열정으로 모'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!

I pray 번역 원문 : George Boronat 신부

번역:정대영요셉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6weol-23il-jigeughi-georughasingeuriseudoyi-seongce-seonghyeoldaecugil/ (2025-11-21)